

論 壇

向後 기생충검사의 필요성



조 승 열

기생충 검사 실시의 개혁을 생각할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두번씩 자신의 대변을 학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모아 검사기관에 보내어 기생충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중 상당한 숫자가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또는 자진하여 정기적으로 기생충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생충검사를 받는 학교 숫자는 전국적으로 약 11,000개에 달하며 검사받은 학생수는 1985년 현재 대상자 약 850만명중 810만명에 달한다. 따라서 1년에 검사받는 수는 모두 약 1,700만명에 이르며 이들중 회

충란 양성자는 매번 치료받고 있다.

이만한 수를 집단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의 기생충 검사는 무슨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어떤 상황에서 마련된 것인가?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 공업화를 추진할 때까지 농업을 근본으로 하여 살아왔다.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전통적 집약 농업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중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전쟁의 참화로인해 결핵과 각종 전염병이 더욱 창궐하였으며 기생충도 유행하고 있었다. 1950

년대 우리나라 사람의 기생충 감염율은 회충80%, 편충 80%, 십이지장충 40%, 동양모양선충 40%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는 장티브스나 콜레라와 같은 급성 전염병의 유행과는 달리 기생충병은 만성적이어서 그 피해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기생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핵”의 예등을 따라 1965년 4월 기생충질환예방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고 이어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 실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집단검사 대상으로 제일 큰 피해자 연령인 학생을 집단검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위의 뜻에 따라 실시된 기생충 검사 및 집단치료가 가능하게 된 것은 집단검사법인 셀로판후층 도말법의 응용으로 대량검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란텔, 메벤다졸등 안전한 구충제가 국산화되면서 산토닌을 대치하는 등 여러가지 기술적 장애를 해결하면서 경험을 축적하여 오늘날과 같은 기생충 집단검사 및 집단치료 체제가 가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기생충검사가 집단적으로 진행되면서 각종 기생충 감염율은 급격하게 저하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우리나라 사람중 84.3%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고 국민 한 사람이 평균 1.5종류에 감염된 상태이던 것이 1976년에는 63.2%가, 1981년에는 41.1%가 감염된 상태로 개선되었다. 올해(1986년)에는 이

“ 1950년대에 이르는 전쟁의 참화로 인해 각종전염병과 기생충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감염율은 회충80%, 편충80%, 십이지장충40%, 동양모양선충40%등 기생충병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5년 4월 기생충질환예방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이어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 실시하게 되었다. ”

들 수치가 더욱 저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회충의 경우 1971년 54.9%, 1976년 41.0%, 1981년 13.0%로 감소하였고, 1986년에는 5.0%이하로 저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에 요약한 개선상태가 오직 기생충검사와 집단투약에 의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동반하여 주어서 이루어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생충중 특히 회충은 방치하였을 경우 재감염이 매우 심하여 7~12개월에 치료전 감염상태로 되돌아 오곤 하므로 정기적으로 그것도 최소한 6개월간격으로 치료하여야 역학적 상황의 악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기간동안 대상자를 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는 점이 기생충검사 및 치료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 상황의 개선이 있게 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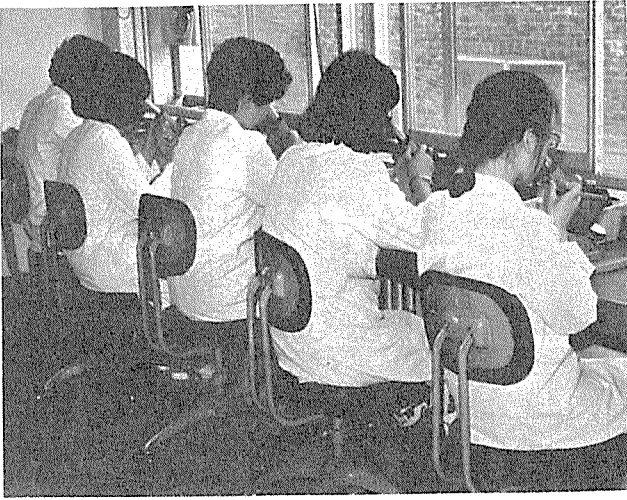
◀ 지금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냐 하는데는 상대적 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과거에 비해 감염율이 낮아졌다는 것 만이 이 귀찮은 검사의 중지를 거론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당연하다 하겠다.

적 여건중 두가지가 특히 이 기간중에 있었다고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중 하나는 상하수도의 설치율이 높아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의 농업기술의 개혁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황이 좋아진 기생충은 흙을 매개로 하여 유행하는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동양모양선충등인데 특히 상수도 사용율이 인구의 90~95%에 이르는 서울등 대도시에서 최근 회충감염율이 저하된 것등과 잘 연관된다. 농업기술의 개혁은 인분비료 대신 화학비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토양과 채소에 기생충오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효과가 인근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1985년도 춘계 학생검변 결과를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회충 총란양성율은 2.3%로서 과거에 비하여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대도시에서의 회충 총란양성율은 각각 0.3%, 0.5%, 0.3%, 0.4% 등 모두 1% 이하이므로 1개 학급에서 회충 감염자가 한명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생충검사를 힘들여 하여도 감염자는 나타나지 않는 데 구태여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특히 감염율이 낮은 대도시의 학교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일선교사 및 양호교사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1976~1978년 전국적으로 회충 양성율이 14~25%였던 시기에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5~10% 로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아진 때에도 있었던 현상임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즉 지금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냐 하는데에는 상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거대한 사업은 매우 경제적인 효율성을 갖고 실시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 사업에 투자되는 일년 예산은 약 25억원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GNP의 0.003%에 불과한 예산으로 이러한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여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과거에 비해 감염율이 낮아졌다는 것만이 이 귀찮은 검사의 중지를 거론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기생충검사가 필요한 이유를 나열하고자 한다.

첫째, 회충 하나만을 예로 들더라도 우리나라 총란양성율이 모두 일률적으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대도시에서 회충감염율이 0.3~0.5%인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농촌 벽지나 도서지방의 어린이중 30~40%가 감염된 경우가 흔히 있음을 지적해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일부 대도시에서 감염율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하여 기생충검사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로 기생충검사 및 치료의 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

직 우리의 수준이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로 기생충검사를 하여 알게 되는 기생충감염이 현재 관리의 주안점이 되고 있는 회충 뿐만 아니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여야 한다. 1985년도 춘계검사 결과만을 보아도 전국적으로 편충감염자 168,830명, 간흡충 6,568명, 폐흡충 46명, 요꼬가와흡충 3,016명, 유무구조충 1,781명, 왜소조충 8,518명등이 발견되었다. 이 숫자는 과거에 비해 결코 줄어 든 것이 아니며 또 그 숫자가 작은 것도 아니다. 특히 간흡충, 폐흡충, 요꼬가와흡충, 유무구조충등 일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생충 감염자만 약 12,000명이 전국적으로 매번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집단적인 기생충검사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넷째로 대변검사를 실시하여 얻는 것이 단순히 기생충검사 및 투약의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대변검사라는 것을 통하여 학생들은 보건교육을 실천적으로 배우며 삶과 항상 동반되는 기생충이라는 것의 존재를 배우는 것이다. 또한 기생충이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이지, 그것을 없애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점들은 결핵의 집단검진이나 기타 학교보건 활동과 함께 교육의 실제적 한 측면으로서 중요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거대한 사업이 매우 경제적인 효율성을 갖고 실시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일년 예산은 약 25억원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GNP의 0.003%에 불과한 예산으로 이러한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생충검사가 당분간 필요하다는 점은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총란양성율의 격감 특히 회충양성율의 감소현상등은 검사체제를 앞으로 시대상황에 맞추어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지역에 따라 1년에 2회 실시하던 기생충검사를 1년에 한번으로 줄여 실시하는 안이라든지, 줄여 실시하는 지역의 범위나 선정의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회충이외의 총란양성자에게도 투약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안을 토의하여 결정하고, 기생충검사 실시의 개혁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현실적 상황의 변화에 가장 냉철하게 대처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의박)

생활과학

● 전기 면도기의 손질

적어도 매주 1회는 꼭 손질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반년에 한번은 내부를 빼내어서 청소하고 축(軸) 받이 부분에 기름을 주도록 한다.

모터식일 경우 소리가 달라지고 회전수가 떨어졌다고 느껴졌을때에는 카바를 열고 모터의 회전 부분에 약

간의 미싱용 기름을 친다.

또 오랫동안 사용중 접점부가 불꽃이 튀어서 검게 되면 종이나 형겅에 알콜 또는 벤진을 축여 깨끗이 닦아낸다.

장기간 사용으로 날이 무디게 되면 절날의 윗면에 라퐁파우더를 고르게 문힌 다음 2~3분 가량 스위치를 넣어서 작동시키면 날이 서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날을 분해해서 알콜 또는 벤진에 담그고 솔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 기름을 준다.